

지관제조업체에서 본 업계 동향

박 영 실 / 수원지관 영업부 차장

1. 지관이란

포장재에 흔히 사용되는 지관이란 두루마리상 또는 판지상의 종이, 판지로 점착제를 사용하여 판형으로 말아 놓은 것을 말한다.

지관은 크게 두가지로 구별하여 정의하는데 각도를 가지고 있는 콘(corn)지관과 각도가 없는 튜브형 지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관은 용도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보빈(BOBBIN) : 섬유산업용으로 화섬 방사공정에서 방사되는 화섬사를 감아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

코아(CORE) : 제지공장 등에서 관상으로 제

조되는 제조물을 말아내는 용도로 사용.

튜브(TUBE) : 지관의 내부에 무엇을 담거나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화이버드럼(FIBER DRUM) : 내경을 갖고 있는 튜브형 지관의 양끝단에 마구리를 하여 만든 용기를 말하며 포장용으로 쓰인다.

컴포지트캔(COMPOSITE CAN) : 작은 내경을 갖고 있는 튜브형 지관의 양끝단을 마구리하여 만든 용기를 말하며 스낵, 식품, 소량의 오일등을 포장하는데 사용.

콘(CORN) 지관 : 각도를 갖고 있는 원뿔형 지관으로 주로 면방, 소모방 공장에서 실을 권사하는데 사용.



◀ 지관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콘지관과 각도가 없는 튜브형 지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사진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지통).

2. 특성

지관은 종이를 주원료로 사용해서 만든다. 종이 주 원료인 만큼 종이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지관의 원료인 종이는 천연원료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공해 유발요소가 없다. 또한 지관은 주원료가 종이, 접착제 등으로 단순하므로 제조가 쉽게 이루어진다.

3. 현 제조업체 실태

국내의 지관제조업체는 약 300여업체가 된다. 그러나 업체가 3~4인으로 구성 운영되는 소규모 업체가 많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

면방적시 필요되는 큰 지관은 튜브형 지관과는 제조방법이 달라 전문적으로 콘지관만을 생산하며 약 22개업체가 월간 2천5백만개의 콘지관을 생산해 월 12억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명 P.O.Y, D.T.Y용 지관이라 칭하는 화섬용 지관은 국내지관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 20여 업체로 구성돼 있다.

월 100억 정도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으며 일부 화섬업체는 직영으로 자체 지관공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폴리에스테르 필름, OPP필름 등을 권취하기 위한 지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에 약 20여개 업체가 있으며 월 시장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한다.

제지(백상지, 신문용지, 라이너지, 화장지)를 권취하는 지관으로서 크게 양단부를 금속링으로 마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국내에 약 20여개 업체가 있으며 월간 약 3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의 지관을 생산하

는 업체로 화이버드럼, 콤포지트 캔 등의 지관을 생산하는 포장용 지관업체는 국내에 약 20여개가 있으며 월 매출은 약 15억정도로 추정된다.

이외의 건축용, 군용, 생필품용 등으로 지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나 정확한 업체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4. 지관제조업 전망

지관제조업은 과거 섬유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다. 현재도 지관의 용도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섬유산업 이외의 용도가 개발되어 포장용 지관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관의 원료가 종이인 만큼 공해요소가 없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용도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산업용 지관 경우에도 고속, 고품질화되어 있는 경향에 맞추어 지관도 고품질 고가의 제품이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필름산업용 지관의 경우는 개발여지가 많아 더욱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다.

지관은 포장용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건축용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용도가 무궁무진해 향후 용도 개척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제조업체의 경우 국내에는 현재 그 규모가 중업원 20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가 많아 너무 난립된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성을 벗어나는 규모의 공장이 점차 늘어날 추세다.

지관제조는 물류특성상 수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어 자국내 수요는 자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품목이므로 지관제조업은 사양할 수 없는 분야다. □